<h1>나 혼자만 레벨업-5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s9cb6a8faf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0화</p>  
<p>진우는 귀를 의심했다.</p>  
<p>'...페널티 존?'</p>  
<p>아-</p>  
<p>생각났다.</p>  
<p>그러고 보니 오늘은 일일 퀘스트를 하지 않았다.</p>  
<p>레벨업의 성과를 시험해 보고 악마성 던전으로 가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.</p>  
<p>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.</p>  
<p>쿠구구구구구구궁-</p>  
<p>병원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곧 모든 것이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퍼석.</p>  
<p>퍼석.</p>  
<p>진우를 에워싸고 있던 기사들도 하나둘씩 모래가 되어 흘러내렸다.</p>  
<p>세계가 변하고 있었다.</p>  
<p>'하... 하하...'</p>  
<p>진우는 소리 없이 실소를 흘렸다.</p>  
<p>어째서인지 퀘스트가 시작되기 직전 시스템이 건넸던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.</p>  
<p>-행운을 빕니다.</p>  
<p>행운을 빌어 줘야 할 만큼 어려운 퀘스트라는 뜻이었을까?</p>  
<p>아니면 행운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높은 포인트를 얻는 것을 응원한다는 뜻이었을까?</p>  
<p>행운, 우연, 뭐라고 불러도 좋다.</p>  
<p>어찌 됐든 기회는 찾아왔다.</p>  
<p>중요한 건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이용하느냐였다.</p>  
<p>구구구궁-</p>  
<p>진동은 더욱 거세졌다.</p>  
<p>진우는 억지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흔들림에 몸을 맡기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.</p>  
<p>'동요하지 말자...'</p>  
<p>그러자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사라졌다.</p>  
<p>감았던 눈을 다시 떴을 땐, 사막모래 위 한복판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그대로 엎어졌다.</p>  
<p>"꺼허억- 허억, 허어억-"</p>  
<p>양손으로 모래를 움켜쥐고 참았던 숨을 있는 힘껏 토해냈다.</p>  
<p>폐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온몸으로 흘러들어 갔다.</p>  
<p>이제야 좀.</p>  
<p>"살 것 같네."</p>  
<p>전신을 감싸는 안도감에 진우는 그 자리에 벌러덩 드러누웠다.</p>  
<p>아무것도 없는 검은 하늘.</p>  
<p>끝없이 펼쳐진 칠흑의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.</p>  
<p>기억 속에 남아 있는 페널티 존의 모습 그대로였다.</p>  
<p>'아차,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.'</p>  
<p>하도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왔더니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말았다.</p>  
<p>그래도 일어나기는 싫어서 진우는 드러누운 채로 상태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[HP: 104 / 10270]</p>  
<p>[MP: 202 / 850]</p>  
<p>[피로도: 91]</p>  
<p>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가 했더니 피로도가 90을 넘어가 있었다.</p>  
<p>'피로도가 90을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, 아마?'</p>  
<p>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.</p>  
<p>체력도 체력이지만 일단 피로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였다.</p>  
<p>"상점."</p>  
<p>띠링.</p>  
<p>허공에 '구매'와 '판매' 두 글자가 나타났다.</p>  
<p>암만 생각해 봐도 성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부실한 상점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.</p>  
<p>그중 가장 비싼 힐링 포션을 골라 구매했다.</p>  
<p>구매를 확정하자마자.</p>  
<p>스르륵-</p>  
<p>대자로 뻗어 있는 손끝에 붉은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나타났다.</p>  
<p>뽕.</p>  
<p>힘겹게 마개를 뽑아낸 진우는 포션을 들이붓듯 입안으로 흘려보냈다.</p>  
<p>꿀꺽꿀꺽.</p>  
<p>붉은색 액체가 식도를 타고 몸안으로 내려갔다.</p>  
<p>[피로가 회복됩니다.]</p>  
<p>[피로가 회복됩니다.]</p>  
<p>[피로가 회복됩니다.]</p>  
<p>최고급 포션이어서 그런지 딱 한 병을 마셨을 뿐인데 피로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.</p>  
<p>그런데 이상하게도 체력량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.</p>  
<p>[HP: 106 / 10270]</p>  
<p>[MP: 204 / 850]</p>  
<p>[피로도 : 0]</p>  
<p>결국 병이 다 비어 갈 때까지도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다. 피로도가 0이 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.</p>  
<p>'왜지?'</p>  
<p>마지막 한 방울을 입안에 톡 털어 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잔여 체력이 10% 이하일 때는 힐링 포션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.]</p>  
<p>이유는 간단했다.</p>  
<p>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란다.</p>  
<p>'하긴...'</p>  
<p>힐링 마법에도 한계는 있으니까.</p>  
<p>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다.</p>  
<p>힐러들의 수준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듯이, 포션도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치료가 불가능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'그 한계가 10퍼센트까지란 말이지.'</p>  
<p>좋은 걸 알았다.</p>  
<p>괜히 포션만 믿고 있었다가 진짜 위급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을 뻔했다.</p>  
<p>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다.</p>  
<p>왜 그런 말도 있지 않은가?</p>  
<p>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.</p>  
<p>그게 다 경험의 힘이다.</p>  
<p>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진우는 이곳 패널티 존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.</p>  
<p>'지금쯤 타이밍이 됐는데...'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아래쪽에서 뭔가 생명체의 기운이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는 몸을 움츠린 뒤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.</p>  
<p>포션 덕분에 힘이 완벽히 돌아왔다.</p>  
<p>탁!</p>  
<p>멀찍이 착지한 진우가 돌아서서 뒤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스르르르르륵.</p>  
<p>예상했던 대로 방금 누워 있던 자리가 움푹 아래로 꺼지며 모래 구덩이가 만들어졌다.</p>  
<p>'전에는 저기 미끄러져서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.'</p>  
<p>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 됐다.</p>  
<p>그렇게 만들어진 모래 구덩이의 가장 아래쪽에서 끓는 것처럼 들썩거리기 시작하다가.</p>  
<p>쏴아아아!</p>  
<p>모래가 기둥처럼 솟아오르며 거대한 지네가 위용을 드러냈다.</p>  
<p>"키에에에에에엑!"</p>  
<p>모든 게 기억과 일치했다.</p>  
<p>'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섭더니...'</p>  
<p>지금은 느릿느릿한 슬로우 영상을 보는 것 같았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좀 더 위를 향했다.</p>  
<p>그러자 지네 머리 위에 있는 선명한 붉은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</p>  
<p>[독이빨 거대 모래지네]</p>  
<p>붉은색 이름.</p>  
<p>악마성 던전에서 봤었던 켈베로스와 같은 색깔이었다.</p>  
<p>마침 퀘스트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: 생존]</p>  
<p>목표: 요구 시간까지 생존하세요.</p>  
<p>요구 시간 : 4시간.</p>  
<p>남은 시간 : 4시간 0분 0초.</p>  
<p>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진우가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.</p>  
<p>'이걸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.'</p>  
<p>즉시 귀환석을 이용해 던전을 탈출한 게 아니므로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다.</p>  
<p>'아마도 페널티 퀘스트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리로 이동되겠지.'</p>  
<p>그리고 만약 페널티 존에 있었던 시간까지 버틴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?</p>  
<p>승급 포인트는 어마어마해질 터.</p>  
<p>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.</p>  
<p>'그러나...'</p>  
<p>평소 시스템이 자신에게 미치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했다.</p>  
<p>'무려 4시간!'</p>  
<p>10분을 못 버텨서 즉시 귀환석을 꺼내 들어야 했는데, 페널티존으로 이동한 덕분에 4시간을 거저 얻었다.</p>  
<p>남은 문제는 하나.</p>  
<p>겨우 100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.</p>  
<p>포션으로 체력 회복이 불가능하니 레벨업을 할 때까지 최대한 피해없이 지네들을 잡아내야 했다.</p>  
<p>일종의 미션이 생긴 것이다.</p>  
<p>'...해 보자.'</p>  
<p>진우는 '카사카의 독니'를 불러냈다.</p>  
<p>그리고.</p>  
<p>[남은 시간: 3시간 59분 59초]</p>  
<p>페널티 퀘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튀어 나갔다.</p>  
<p>지네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이었다.</p>  
<p>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들어간 진우가 지네 앞에서 가볍게 점프했다.</p>  
<p>탓!</p>  
<p>한 번의 도약으로 지네 몸길이의 반쯤 되는 곳의 다리에 착지한 진우는, 지네 몸통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며 지네의 표피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.</p>  
<p>콱! 콰곽! 콱!</p>  
<p>역수로 쥔 '카사카의 독니'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표피가 갈라지며 체액이 쏟아졌다.</p>  
<p>끼에에에에엑!</p>  
<p>지네는 고통스러운지 상처를 입을 때마다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진우의 다리가 더욱 빨라졌다.</p>  
<p>탓, 탓, 탓, 탓!</p>  
<p>순식간에 몸통을 타고 지네 머리 꼭대기에 도착한 진우가 양손으로 단검의 손잡이를 쥐었다.</p>  
<p>그리고!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스킬을 사용해 있는 힘껏 지네의 머리를 찍었다.</p>  
<p>거꾸로 선 날이 지네의 머리를 파고들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['급소 찌르기' 스킬의 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좋고!'</p>  
<p>간만에 들려온 좋은 소식!</p>  
<p>레벨이 올라간 급소 찌르기의 데미지가 상당한지 지네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고통스러워했다.</p>  
<p>끼에엑, 끼엑!</p>  
<p>진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.</p>  
<p>지네의 머리를 밟고서 놈의 등 뒤쪽으로 이동했다.</p>  
<p>무방비 상태의 등이 보였다.</p>  
<p>푹!</p>  
<p>지네의 등에 단검을 깊숙이 찔러넣은 진우는 그대로 아래를 향해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파가가가가가가갓!</p>  
<p>120을 넘긴 근력 스탯에서 나오는 완력과 5층 건물 높이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중력의 도움으로, 지네의 등이 멋지게 갈라졌다.</p>  
<p>파가가각!</p>  
<p>탁.</p>  
<p>진우는 무사히 착지했다.</p>  
<p>끼에엑, 끼에에에에!</p>  
<p>지네는 체액을 사방으로 뿌리며 그 거대한 몸뚱이를 흔들다가 서서히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.</p>  
<p>쿵!</p>  
<p>지네가 쓰러지며 모래 먼지가 피어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독이빨 거대 모래지네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손끝으로 먼지를 쫓아내면서 시간을 체크했다.</p>  
<p>[남은 시간: 3시간 59분 42초.]</p>  
<p>'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7초.'</p>  
<p>지네를 잡는 데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다.</p>  
<p>동급 몬스터인 켈베로스를 잡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.</p>  
<p>차원이 다르게 강해졌다.</p>  
<p>'하긴 그동안 올린 렙이 몇 개고, 갖춘 템이 몇 가진데...'</p>  
<p>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.</p>  
<p>이 정도면 체력 손실 없이도 사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.</p>  
<p>'문제는 여기에 레벨업까지 잡을 몬스터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건데...'</p>  
<p>그래야 다시 전직 퀘스트로 돌아가도 승산이 있으니까.</p>  
<p>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직 퀘스트용 던전에 돌아가 봐야 개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.</p>  
<p>주변에서 모래 기둥들이 하나씩 솟아올랐다.</p>  
<p>쏴아아악-</p>  
<p>쏴아악-</p>  
<p>동족의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거대지네들이었다.</p>  
<p>끼에에엑-</p>  
<p>끼에에엑-</p>  
<p>일순간 진우의 표정이 환해졌다.</p>  
<p>'대체 몇 마리야. 이게?'</p>  
<p>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지네들을 보면서, 진우는 입가에 걸리는 미소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장장 4시간 동안 지네들과 씨름한 끝에 4업을 더해 51레벨이 되었다.</p>  
<p>어느덧 페널티 퀘스트도 끝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: 생존]</p>  
<p>목표: 요구 시간까지 생존하세요.</p>  
<p>요구 시간: 4시간.</p>  
<p>남은 시간: 0시간 3분 19초.</p>  
<p>곧 돌아가야 할 시간.</p>  
<p>진우는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. 사방에 지네들이 사체가 가득했다.</p>  
<p>이놈들 덕택에 체력을 회복했다.</p>  
<p>'아이템이나 골드 같은 부수적인 수입이 없는 건 아쉽지만...'</p>  
<p>벌 받으라고 만든 구역에서 그런 게 쏟아진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.</p>  
<p>이제 준비를 할 차례였다.</p>  
<p>'상점.'</p>  
<p>[보유한 금액: 311만 5,629골드]</p>  
<p>인간형 몬스터들이 워낙에 돈주머니를 잘 줬던 데다가 이그리트에게서 한꺼번에 150만 골드를 얻었던 게 컸다.</p>  
<p>자금은 넉넉했다.</p>  
<p>진우는 골드를 탈탈 털어 무기 하나를 샀다.</p>  
<p>마침 딱 맞는 게 하나 보였다.</p>  
<p>[아이템: 나이트 킬러]</p>  
<p>입수 난이도: B</p>  
<p>종류: 단검</p>  
<p>공격력 +75</p>  
<p>기사들의 갑옷을 벨 수 있도록 단단하고 날카롭게 연마된 단검입니다. 칼날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갑옷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</p>  
<p>효과 '기사 죽이기': 중장갑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25%의 추가 데미지가 붙습니다.</p>  
<p>갑옷을 입은 대상을 처치하는 데 특화된 무기였다.</p>  
<p>가격은 280만 골드.</p>  
<p>가진 돈을 거의 다 써야 살 수 있는 무기였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.</p>  
<p>'골드를 저승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'</p>  
<p>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선택했다.</p>  
<p>['나이트 킬러'를 구매하셨습니다.]</p>  
<p>['붕대'를 구매하셨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'나이트 킬러'와 함께 붕대를 하나 샀다.</p>  
<p>무시무시하게 생긴 톱날 모양의 날을 가진 단검.</p>  
<p>'나이트 킬러'를 오른손에 꽉 쥔 채로 붕대를 둘둘 감아 단단히 묶었다.</p>  
<p>쉭! 쉬쉭!</p>  
<p>'나이트 킬러'를 휘둘러 봤더니 마치 한 손이 된 것처럼 일체감이 느껴졌다.</p>  
<p>'최소한 떨어뜨리진 않겠군.'</p>  
<p>왼손도 '카사카의 독니'와 묶어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만뒀다.</p>  
<p>두 손 다 못 쓰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.</p>  
<p>적어도 한쪽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.</p>  
<p>남은 붕대를 창고에 넣다가 이그리트에게서 얻은 룬석을 발견했다.</p>  
<p>'참, 이게 있었지.'</p>  
<p>[룬석: 지배자의 손길]</p>  
<p>룬석을 부수면 스킬이 흡수됩니다.</p>  
<p>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.</p>  
<p>그게 아이템이 됐든, 스킬이 됐든 모을 수 있는 힘은 전부 모아야 했다.</p>  
<p>진우는 미련 없이 룬석을 부셨다.</p>  
<p>['스킬: 지배자의 손길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[스킬: 지배자의 손길 Lv.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없음.</p>  
<p>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사물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</p>  
<p>'아...'</p>  
<p>설명을 보자마자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.</p>  
<p>이그리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장검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였다.</p>  
<p>'그때 장검을 움직인 게 이 스킬이었군.'</p>  
<p>원거리에서 의지만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스킬이라니!</p>  
<p>게다가 소모 마나도 없었다.</p>  
<p>'설명처럼 모든 물체를 다 움직일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스킬인데.'</p>  
<p>진우는 당장 옆에 축 늘어져 있는 지네 사체에 스킬을 시험해 봤다.</p>  
<p>[숙련도가 낮아 움직이지 않습니다.]</p>  
<p>[숙련도가 낮아 움직이지 않습니다.]</p>  
<p>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려면 숙련도가 꽤나 필요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'그럼 이건?'</p>  
<p>진우는 '카사카의 독니'를 발아래에 떨어뜨렸다. 그리고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다.</p>  
<p>그러자 독니가 쉽게 올라왔다.</p>  
<p>탁!</p>  
<p>'오.'</p>  
<p>진우는 독니의 손잡이를 낚아채고서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.</p>  
<p>'좋아. 이 정도면 도움이 되겠다.'</p>  
<p>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.</p>  
<p>고개를 들어 보니 요구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[남은 시간: 0시 0분 4초]</p>  
<p>4초가 3초로 바뀌면서 시스템 메시지가 올라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곧 페널티 퀘스트가 종료됩니다.]</p>  
<p>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페널티 구역에서 사냥을 시도하였으므로 다음 페널티 퀘스트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됩니다.]</p>  
<p>난이도의 상향 조정.</p>  
<p>사냥을 어렵게 만들어서 페널티를 페널티답게 만들겠다는 거겠지.</p>  
<p>그런데, 다음이란 게 있긴 할까?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'이제 전직 퀘스트가 다시 시작된다.'</p>  
<p>보스방엔 수백이 족히 넘어가는 몬스터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.</p>  
<p>어쩌면 더 늘었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좋게 말해서 돌아간다는 거지, 사실 거기에 던져지는 거였다.</p>  
<p>체력, 마나, 피로도, 장비, 스킬.</p>  
<p>그리고 마음가짐까지.</p>  
<p>모든 상황이 거기 처음 발을 디뎠을 때보다 훨씬 좋았지만, 막상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.</p>  
<p>진우는 눈을 감았다.</p>  
<p>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이윽고 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를 종료합니다.]</p>  
<p>'이번이 마지막 기회...'</p>  
<p>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.</p>  
<p>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일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은빛 기사들이었다.</p>  
<p>중요한 건 녀석들이 아니다.</p>  
<p>순간 진우의 눈이 무언가를 찾는 듯 예리하게 번뜩였다.</p>  
<p>'일단은 마법사부터!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